

선천성 기관협착증의 외과적 교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김홍관, 김영태, 성숙환, 김주현, 김용진

배 경: 선천성 기관협착증의 외과적 교정은 적절한 대체조직의 부재, 부족한 증례 등으로 인해 높은 유병률 및 사망률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내 보고는 미흡한 수준이다.

대상 및 방법: 1994년 4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선천성 기관협착증을 진단받은 총 18명의 환자 중 8명에서 기관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시 평균연령은 4.1 ± 2.3 (0.8 - 7.6) 개월이었고 남녀성비는 6:2 였으며 심혈관계가 동반된 경우는 6례였다. 기관 수술방법은 Slide tracheoplasty 4례, 자가심외막을 이용한 첩포기관성형술 3례, 절제후 단단 문합술 1례였다. 2002년 8월 31일을 추적관찰종료시점으로 하여 추적관찰기간의 중앙값은 21.1(0.8 - 101.2)개월이었다. 수술 사망률 및 수술 후 장기 성적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조기사망은 2례(25%) 발생하였고, 사망 원인은 기관문합부위 열개 1례, 슬후 호흡성 산증 1례였다. 수술방법에 따른 슬후경과를 비교하였을 때 Slide tracheoplasty의 경우 조기사망 1례를 제외하고 모두 증상없이 생존한 반면 첩포기관성형술의 경우 조기사망 1례와 자가심외막의 괴사로 인해 재수술 시행후 반복적으로 육아조직이 생성되어 장기간 입원치료 증인 1례가 발생하였다. 비교적 짧은 길이의 병변으로 절제후 단단 문합이 가능하였던 1례는 증상없이 생존하였다.

결 론: 선천성 기관성형술의 외과적 교정은 높은 유병률과 사망률을 보였고 특히 자가심외막을 이용한 첩포기관성형술의 경우 육아조직 생성이 문제가 됨을 알 수 있었다. Slide tracheoplasty는 비교적 우수한 결과를 보여 길이가 긴 선천성 기관협착증의 치료에 가장 적절한 수술법으로 판단되었다.